inSANe Fanmade Scenario

아,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

4인 3사이클 특수형



사본 저장 가능 룰 컨버팅 가능 …

기타 등등 도의적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다 가능 …

개요

우리는 모두 이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의 시민입니다.

야생지에 건물을 빼곡히 지어올리고, 도로로 그들을 엮어 사람을 낱낱이 실어보내면서,

멈춤 없이 팽창하는 도시, 도시, 도시!

아, 이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는 그 어떠한 추문으로부터도 결벽하리라.

공개사명

PC1	당신은 이 메갈로폴리스의 청소부이다. 매일 새벽녘, 쓰레기를 수거하는 당신의 【사명】은 이 메갈로폴리스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불사할 수 있다.
PC2	당신은 이 메갈로폴리스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출퇴근 시간은 왕복 2시간, 회사에서 점심 시간까지 포함해 9시간을 보낸 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야근과 잔업을 처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까지 하고 나면 어느덧 자야할 시간이 다가온다. 제대로 된 취미 생활을 가지기도 힘든 것이 이 도시 '평범한' 회사원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도시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당신의 【사명】은 이 도시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PC3	당신은 이 메갈로폴리스의 힙스터 아티스트다. 헤비 SNS 이용자인 당신은 도시의 곳곳을 담아낸 사진으로 많은 팔로워를 모았다. 때로는 당신의 본 작업물보다 이 도시를 찍은 사진에 매료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걱정스럽지만, 그만큼 이 도시의 매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겠지. 이 도시는 당신의, 아니, 우리의 뮤즈다. 당신의 【사명】은 이 도시를 널리 알려, SNS 팔로워를 키우는 것이다.
PC4	당신은 이 메갈로폴리스의 야당 정치가다. 이곳을 지역구로 삼고서 3선에 연달아 성공했으나, 공교롭게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4선에는 실패했다. 당신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유권자들이 몰라주다니, 이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다. 당신의 【사명】은 이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의사항

- 굉장히 호러틱하고 싸캐스틱한 부조리극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그체를 사용하며) 취향을 많이 탈 것 같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로테스크한 묘사가 나오고, 보는 사람에 따라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도시'스럽게 선언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 : 시청 직원에게 뒷돈을 찔러줘요, 암흑가의 보스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요, 해킹을 해요 등등…)
- 탁 돌리는 마스터에게 아아메 한 잔씩 사주세요. 이 시국이라서 연출은 ORPG 텍스트 세션에 맞춰져 있습니다… 만 마스터가 연출을 편하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 트리거 워닝 : 교통 사고, 린치,

이하로는 시나리오 진상과 본문이 이어집니다.

진상 및 광기카드, 장면표

이 세계의 도시들은 살아 있습니다. 즉, 다른 유기체를 섭취하여 성장합니다. 때로는 다른 도시와 맞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덩치가 큰 쪽이 작은 쪽을 먹어 치웁니다. 미국 동부의 거대한 메갈로폴리스는 대체로 뉴욕과 그 주변이라고 불리잖아요? 도시의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도시에 대한 사랑을 세뇌받으면서 삽니다. 도시를 위해서 일하고 청소하고 가꿉니다. 세포가 전체 생물을 위해서 종사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자동차는 혈액처럼 도시 곳곳을 돌면서 물류와 인간들을 공급하고요. 혹시 아름다운 야경을 보거나, 집을 더 큰 곳으로 옮기거나, 약간의 권력이라도 쥐면 그 사랑은 점점 부피를 키워갑니다. 뭐, 스스로를 뉴요커나 파리지앵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 곳곳에서는 도시니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협잡, 부조리한 갑질, 기타 등등……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부당 거래'를 찍을 수도 있겠네요. 추천 광기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발동 시 겁나 웃겨지는 광기로는 기억상실이 있습니다. **광기카드는 넉넉하게 스무 장** 정도 챙겨주세요. 장면표는 사실은 무서운 현대 일본을 사용합니다.

마스터장면

특수 기믹 :: 빨간 약

현재 이성치 - 현재화된 광기의 개수 < 3일 경우, 마스터 장면 '독백'을 추가하고 사명을 교체합니다. (클라이맥스여도 예외는 없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이전 사명으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교체된 사명은 핸드아웃의 뒷면에 추가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사명이 교체된 이후로는 비밀 공유로 이성치가 깎이지 않습니다. 사명 교체는 최대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교체 사명	당신은 깨닫는다. 이 도시는 팽창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종래는 당신마저 부품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버린 당신은 이 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모든 세포가 숙주의 유지를 위해 작용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도시의 암세포가 된다. 당신의【사명】은 도시의 추문을 알려, 도시의 팽창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독백

등장인물 : 특수 기믹으로 인한 사명 교체자 ***(PC1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는 부조리극의 독백처럼 연출하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도시의 모든 것이 갑자기 회색으로 빛을 잃더니 시간이 멈춥니다. 마치 암전된 듯한 연극 무대 위에서, PC의 머리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꽂힙니다.

/desc 당신은 깨닫습니다.
/desc 이 대도시가 어떠한 기전으로 팽창하고 있었는지를요.
/desc 그러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OO'을 먹어치우면서…
/desc 아, 이건 정말 부조리해!
/desc 이제, 독백의 순간입니다.

필름 돌아가는 소리.
드르륵, 탁.

지나가던 사람 : (양팔을 벌리고) 처음 이 도시에 온 것은, 그러니까, 일곱 살 때였어요. 네온싸인 간판에 쓰인 글씨들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고, 온갖 빛이 밤하늘을 무도하게 찔러대는 와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저씨 중 한 명이 횟집의 수조에 대고 구토했죠. 광어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PC O은, 당신은 어땠죠?

연출 후 갱신 사명을 주면 됩니다.

- PC가 연출 감을 잡지 못 하고 헤맨다면, '도시를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깨닫고 마는 부조리극의 주인공의 독백'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좋겠네요. 만약 해당 심상을 공유하지 못 하는 PC가 절대 다수라면 이 마스터 씬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연출이 있는 거겠죠!**

도입

등장 인물 : 전원

아침 8시 10분, 막 이사한 아파트를 떠나 회사로 출근하던 PC 2는 PC 1의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선거홍보물들이 길거리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선거 홍보물들 사이에서 PC 4의 얼굴도 보이겠네요. PC 1은 그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혹은 비질에 열중하는 중입니다. 밤을 새고 작업하다가 돌아오던 PC 3은 그 장면을 휴대 전화로 찍었습니다. SNS에 올릴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글쎄요, 힙스터의 감성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완벽했을 사진 귀퉁이에 이럴 수가, 익숙한 얼굴, PC 4가 불청객으로 자리합니다. PC 4도 마침 PC 3이 자신을 찍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뭐지, 저 녀석? 정탐꾼인가?

잠시 롤플레이를 진행합니다.

사람 넷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거리. 얼핏 평범했을 아침은 문득 들려온 ***스산한*** 소리 때문에 멈춥니다. 비탈길에서 무거운 SUV가 굴러가더니,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꽤 높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차는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뭐, 예의 모두가 예상하는 그 소리가 들린 다음에…… 바퀴 아래로 피가 번집니다.
SUV가 멎은 곳은 도로의 끄트머리로, 먼 곳에 순환 도로 공사현장이 보입니다.
다행일까, 불행일까. 교통 사고 사망 현장이 일어난 이 장소에는 사람들이 잘 오가지 않습니다.

핸드아웃 **[SUV]**와 **[불명의 시체]**를 공개합니다.

무엇인가 이상하다

등장인물 : 전원

조건 : SUV의 비밀이 공개됨

SUV의 소유주가 PC 4라는 것이 밝혀지지만, PC 4는 한 번도 해당 차종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돈의 이동 또한 포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순간, PC 3의 휴대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립니다. 프로필 사진은 온통 새까만 그림 파일인데, 불과 1분 전에 올라온 영상이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SUV가 동영상 촬영자를 향해서 미친듯이 굴러떨어지고 있는 영상. 이윽고 핸드폰이 허공을 날더니 렌즈에 온통 붉은 피가 덕지덕지 묻습니다.

SNS 댓글은 이미 수두룩합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다니, 제정신이야?' '팔로워 팔이에 미친 건가?' ***'아, 나 저기 알아. OO아파트 근처야.'*** 'SUV 번호는 안 보이네.'

한동안 비난 여론이 넘쳐나던 댓글은, 누군가 올린 글에 의해 반전이 됩니다. 'PC 3의 이번 작품인가 보다. 현실감 넘친다. 딱히 고어한 장면도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PC3의 SNS에 올라오던 사진들처럼 탁월한 영상적 감각이 느껴져…. PC3의 사진과 영상은 언제나 이 메갈로폴리스의 적아, 그 자체지.' 그 후로 이어지는 댓글은 모두 PC3의 새로운 작품을 찬양하는 글들 뿐. 여론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더 이상 여론은 PC 3의 편이 아니겠지요. 이 아파트의 가격 역시도 추락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SNS에서도… **핸드아웃「SNS의 유언비어」를 공개합니다.**

주변을 수색해도, 영상을 찍은 핸드폰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전원, 폭력 분야 무작위 특기로 공포 판정**

이 사고를 잘만 하면 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PC1은 원할 때 **핸드아웃「도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PC 1이 2사이클 자신의 턴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마스터가 공개합니다.

백혈구

등장인물 : '도시의 추문'을 조사한 전원

조건 : '도시의 추문' 뒷면이 3개 이상 공개됨

창문을 선탠한 SUV가 봉마인들 앞에 멈춰 섭니다. 이윽고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럿 내립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빡빡 깎은 머리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느낌으로, 지나치게 몰개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은 브라운관 너머가 아니라 봉만인들의 앞에 실재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 누군가가 협박합니다.

“더 이상 캐고 다니지 않는 게 신상에 이로울 텐데. 진심으로 하는 충고야. 미치고 싶어?”
“때로는 모르는 게 더 이로울 때가 있지.”

마스터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협박만 하고 떠나도 좋고, 아니면 전투를 벌여도 좋습니다. 검은 남자들의 데이터는 하단에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마스터의 판단에 따라, 도시가 자신의 추문을 파고드는 봉마인들을 막기 위해 제지하는 장면을 여럿 연출해도 좋습니다. SNS에 봉마인의 과거에 대한 거짓(혹은 진실인) 폭로를 올린다거나,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의 고소가 들어왔다거나, 빚 독촉이 들어오는 등등… 한국 영화(부당거래, 베테랑, 검사외전 등등)에서 힘 있고 돈 있는 빌런들이 할 만한 짓거리들을 구현해주시면 됩니다. 각 플레이어들의 불호 요소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검은 남자들

위협도	2	속성 | 생물	생명력 | 6
호기심 | 폭력		특기 |《협박》,《구타》,《고통》	
어빌리티 |	【기본 공격】	공격	《구타》
	【위험 감지】	서포트	《고통》
	【난동】	공격	《구타》

특수 기믹 :: 도시의 추문

클라이맥스에 들어가기 전, 각 PC들이 뒷면을 알고 있는 도시의 추문 개수만큼 프라이즈 ‘**아,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를 받습니다.

아,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	아,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
이 프라이즈의 소유자는 클라이맥스에서 자신의 턴을 하나 추가하거나,	쇼크 : 광기 카드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의 턴을 하나 삭제할 수 있다. 이 프라이즈의 비밀은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아, 이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는* *어떤 추문으로부터도 결벽하리라.* *아, 이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는* *어떤 추문으로부터도 결벽해야 한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니까?***

핸드아웃

- PC

PC 1
당신은 이 메갈로폴리스의 청소부이다. 매일 새벽녘, 쓰레기를 수거하는 **당신의 【사명】은 이 메갈로폴리스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불사할 수 있다.

PC 1
쇼크 : PC2, PC3
그래, 당신은 이 메갈로폴리스의 청소부이다. '청소부'가 시체처리자들을 부르는 이명임은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도시에 관한 추문을 퍼뜨리는 이들을, 모두 처리하여 수거해왔다. 사실, 당신이 일을 수행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은 핸드아웃 '도로'의 뒷면을 알고 시작한다. **또한, 당신은 원하지 않는 마스터 장면이라면**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아, 이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는* *어떤 추문으로부터도 결벽하리라.*

PC 2
당신은 이 메갈로폴리스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출퇴근 시간은 왕복 2시간, 회사에서 점심 시간까지 포함해 9시간을 보낸 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야근과 잔업을 처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까지 하고 나면 어느덧 자야할 시간이 다가온다. 제대로 된 취미 생활을 가지기도 힘든 것이 이 도시 '평범한' 회사원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도시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당신의 【사명】은 이 도시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PC 2
쇼크 : 없음
아니, 로또에 당첨된 이후로는 '평범한' 회사원은 아니려나? 당신은 복권 당첨금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다. 간신히 잡은 계층 상승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당신의 【사명】은 집값을 떨어뜨릴 어떠한 요인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당신은 도시의 추문 중 하나를 랜덤하게 습득하고 시작한다. *아, 이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는* *어떤 추문으로부터도 결벽하리라.*

PC 3	PC 3
당신은 이 메갈로폴리스의 힙스터 아티스트다. 헤비 SNS 이용자인 당신은 도시의 곳곳을 담아낸 사진으로 많은 팔로워를 모았다. 때로는 당신의 본 작업물보다 이 도시를 찍은 사진에 매료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걱정스럽지만, 그만큼 이 도시의 매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겠지. 이 도시는 당신의, 아니, 우리의 뮤즈다. **당신의 [사명]은 이 도시을 널리 알려, SNS 팔로워를 키우는 것이다.**	쇼크 : 없음 당신은 얼마 전, SNS 팔로워로부터 DM을 받는다. 이 도시가 사람들의 욕망을 흡수하고 자라고 있으며, 당신의 SNS가 도시를 키우는 데 지나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도시가 당신마저 먹어치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정을 들어가 보니 팔로워도 몇 되지 않는 계정에, 터무니 없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다. SNS에서 지나친 인기를 얻다 보면 별별 이상한 놈이 다 붙기 마련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도시라니,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잖아? *아, 이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는* *어떤 추문으로부터도 결벽하리라.*

PC 4	PC 4
당신은 이 메갈로폴리스의 야당 정치가다. 이곳을 지역구로 삼고서 3선에 연달아 성공했으나, 공교롭게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4선에는 실패했다. 당신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유권자들이 몰라주다니, 이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다. **당신의 [사명]은 이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쇼크 : 없음 지금까지 당신은 이 도시와 관련된 추문을 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때때로 동료 의원들조차 의아해했지만, 당신은 스스로의 정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도시를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나 우연히 어떤 기자가 이 메갈로폴리스와 관련된 X파일을 입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기사를 막아야 해. *아, 이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는* *어떤 추문으로부터도 결벽하리라.*

SUV	SUV
정체 모를 무엇인가를 쳐 버린 SUV. 밑에 깔려 있는 그것은 사람인 걸까? 동물이라기에는 피의 양이 너무 많다. 하지만 분명히 이곳에는 네 명의 사람들 밖에 없었는데. 주차 브레이크는 제대로 잠겨 있었다. 도대체 이 SUV가 비탈길에서 흘러내린 까닭은 무엇일까?	쇼크 : 없음 확산 정보. SUV의 소유주는 PC 4였다. 그러나 PC 4는 단 한 번도 SUV를 구입한 적이 없다. **이벤트《무엇인가 이상하다》 발생.** **전원, 폭력 분야 무작위 특기로 공포 판정**

불명의 시체	불명의 시체
SUV 밑에 깔린 신원 불명, 정체 불명의 시체. 동물이라기엔 피의 양이 너무 크고, 사람이라기엔… 어째서일까. 도무지 사람의 시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어서 빨리 치워야만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SUV를 치워야 할 텐데…	쇼크 : 전원 시체는 아주 작은 마네킹 같다. 프랑켄슈타인처럼 여러 사람을 얼기설기 얽어둔 듯한 이상한 모습이다. 다른 색의 피부가 접붙었고, 손가락의 크기는 모두 들쑥날쑥하다. 얼굴에는 코가 세 개, 눈에 자라난 이빨, 웃고 있는 입술 안에는 혀가 다섯 개. **신분증에는 '도시의 시민'이라고 적혀 있다.** 이런 것이?

도로	도로
사고가 일어난 도로. 주변에 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를 하는 중이라는 표지가 있지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제법 오래된 것 같다. 먼 곳에서는 빌딩을 올리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보인다. 이 도시는 개활지를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뭔가***를 버려도 아무도 모를 것만 같다.	쇼크 : PC 1 제외 전원 당신이 '그것'을 도로에 두고 사라진 다음 날, 당신이 버린 물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 웬일인지 도로가 조금 더 연장되었을 뿐이다. 이대로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도.	아스팔트 밑에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웃음》으로 공포 판정.**

SNS의 유언비어	SNS의 유언비어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쇼크 : 없음 확산 정보. 도시에 관한 괴담이 한둘이 아니다. 이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다니? 도시의 추문과 관련된 핸드아웃을 모두 공개한다. 특수 기믹 '도시의 추문'을 공개한다.

도시의 추문

버려진 공사 현장	버려진 공사현장
밤마다 폭주족과 불량배들이 모이는 곳. 앙상한 철골에 매달려 있는 비계가 을씨년스럽다. 비에 젖은 담배 꽁초와 피 묻은 각목 따위가 너부러져 있다. 분명히 인부들이 드나들지 않는데도, 야금야금 건물은 높아지고 있다.	쇼크 : PC 1 제외 전원 건물 가장 높은 곳, 모서리를 따라 무엇인가 길다란 것들이 하늘하늘 움직이고 있다. 가까이 가보니, 철골 위로 사람의 팔다리들이 길죽 솟아 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자란 것처럼 이음새가 없이 접붙은 모습. 무수한 손가락들과 발가락들이 꼼지락거린다. **《풍경》으로 공포 판정.**

공장	공장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정체 모를 공장. 아무도 출근하지 않고, 아무도 퇴근하지 않는다. 심지어 물류를 위해 출입하는 차조차 없다. 그러나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며 연기를 내뿜는다. 톱니바퀴 회전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앙상한 철조망 사이로 푸른색 전기 스파크가 튀어오른다.	쇼크 : 전원 공장 안, 거대한 기계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다. 집게발 아래로 사람의 사지가 달려 있다. 이목구비 없는 머리까지 한데 모아 조립 중이다. 마네킹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찰나, 얼굴 부분이 흐리게 뭉개지더니 완성된 사람이 어디론가 걸어나간다. 그 사람은 곧 당신이 아는, 안다고 생각하는, 익숙하지만 결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친숙한 무엇인가로 바뀐다. 당신은 문득 당신 부모님의 얼굴과 성함이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낯선 사람	낯선 사람
어쩐지 이 도시에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쇼크 : 없음

계속해서 지하철과 버스의 노선도를 확인하고 있다.
초조해 보인다.
아무래도 언론사가 밀집되어 있는
시청에 가려는 모양인데.
도시의 시민들 대부분은
차갑게 그 사람의 곁을 스쳐지나간다.
그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가
낯선 사람에게 어느 골목길을 가리킨다.
잠깐, 그곳은 막힌 길인데?

골목길 속, 낯선 사람이
군중에 의해 구타당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타난 거지?
그보다, 저 사람 살아는 있는걸까?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에게 다가가니,
선량한 얼굴의 사람들이 막아선다.

"이 자식은 이 도시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정부 청사 유치를 두고 싸우는 옆도시 사람이라고!"
이 자체가 나쁜 소문이 될 것 같은데.

도시의 역사

강이 흐르고 땅이 비옥한 이곳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비록 난개발로 인해 남아 있는 유적은 없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도시의 역사

쇼크 : PC 4

역사서의 일부.

「이 고을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혹은 전쟁이 일어날수록 더욱 부피를 키워간다.
마치 피를 마시고 확장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이 고을의 사또는 누구인지
어떤 명부를 찾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시장이……
누구였더라?

검은 소문

이 도시의 사망률과 실종률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기이하게 높다.
아무래도 메갈로폴리스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범죄자나 신용불량자들, 혹은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많은 거겠지.
세상에 안 그런 도시가 어디 있어.

검은 소문

쇼크 : PC 1

이 도시에는 음산한 소문이 돈다.
도시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도시 스스로 먹어치운다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앰뷸런스와 순찰차가

밝은 만큼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아름다운 거야.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처리된 부품들을 정리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도시는 완벽한 생태계를 이룩하고 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도시 개발 계획	도시 개발 계획
도시 곳곳의 그린벨트는 곧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다. 이 도시의 접경 지역은 쉬지 않고 넓어지고 있다. 언제고 숲이 밀리고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 분명하지만,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땅을 사서 묘목을 심고 있다. 이 도시가 반드시 번영하리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시민들에게 부를 안겨다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쇼크 : PC 2 도시의 개발 계획은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때 그때 도시의 욕망에 따라 무수히 자라날 뿐이다. 따라서 집값을 예측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의미하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도시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운에 맡기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위에 올라갈 사람은 도시가 직접 선택한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아아떼	#아아떼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해시태그로, 이 아름다운 메갈로폴리스의 곳곳을 찍어 올리는 일종의 챌린지다. 자극적일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상위에 올라오는 게시글들은 하나같이 잔혹하거나 외설적이다. 현재 공유수 1위는 얼마 전 PC 3의 SNS에 올라온 사고 영상, 아니, 예술 작품이었는데… 어라? 새로운 게시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쇼크 : PC 3 익명의 누군가가 PC들의 모습을 찍어 올렸다. 그런데, 이상하다. PC들이 드잡이질을 하며 서로 싸우고 있다. 그것도 서로 피를 흘릴 지경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 없었는데……. 순식간에 새로운 게시글은 공유수 1위가 되었다. 댓글에는 PC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넘쳐난다. 알리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비밀들까지 SNS에 공유된다. 잠시 뒤, 게시글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사라졌다. 뭐야, 꿈인가? **《미디어》로 공포 판정.**

시청	시청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한 시청. 아주 오래 전에는 이곳에 관청이 있었다고 한다. 도시의 뇌이자 심부라고 할 수 있는 곳. 사람들이 바쁘게 오간다.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시청 공무원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죽어 있다	쇼크 : 전원 느리게 박동하는, 아주 오래되고 붉은 돌이 있다. 돌에 돋아난 힘줄을 따라 무엇인가가 이동하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잠시 뒤, 붉은 액체로 덮인 덩어리가 튀어나오더니 차갑게 죽어간다. …붉은 액체를 닦아내자, 기이하게 엉켜 있는 콘크리트 더미가 드러난다. 착각일까. 도시가 크게, 숨을 내쉰 것 같다.

클라이맥스/엔딩

클라이맥스는 전투로 진행합니다. 특수 기믹 '빨간약'을 통해서 각성한 친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투를 연출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괴이 *이웃 도시***를 등장시킵니다. (도시와의 전투가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마스터는 협력형으로 변경하셔도 좋아요.) 수적 열세가 있다면 '이웃 도시'와 빨간약 친구의 합작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연출 방식은 마스터의 취향에 따라 정말로 육체적인 전투를 벌여도 좋고(서로의 입을 막기 위해 총이나 칼을 겨누는 식으로), 아니면 **SNS의 유언비어에 대응하는 식으로 해도 좋고**("초록 코끼리 문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마타 도어를 날리는 언론전으로 연출**하셔도 좋네요. 아무래도 시나리오 느낌이 느낌이다 보니까 후자가 더 독특한 맛이긴 하겠어요. 뭐 1라운드는 SNS, 2라운드는 언론전(어쩌고저쩌고 SNS 설전 파문), 3라운드는 현피(야, 임마!) 이런 식으로 가도 웃기겠네요. 빨간약 친구들이 이기면 도시는 힘을 잃고 몰락합니다. 언젠가 새로운 도시가 나타나겠지만, 어쨌거나 적폐 청산과 부패 해결, 혁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약을 먹지 않았을 경우, PC 1은 암흑가의 제왕이 됩니다. (존 윅쯤 되는) PC 2의 집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PC 3은 지금보다 더 큰 SNS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포스팅 하나 올릴 때마다 큰 돈을 받습니다. 방송 출연도 하고요. PC 4는 4선에 성공합니다. 이웃 도시가 이길 경우, 이웃 도시가 이 메갈로폴리스를 잡아먹고 PC들도 도시 구성물의 일부가 됩니다.

이웃 도시

위협도 | 5　　속성 | 괴이/현상(1권 245p 참조)　　생명력 | 10

호기심 | 기술　　특기 | 《분해》, 《정리》, 《미디어》, 《혼돈》

어빌리티 |　　【기본 공격】　공격　《분해》

【생명 흡수】　공격　《정리》

인세인 2권 188p. 발광체 참고.

【재구성】　서포트　《혼돈》

전투 장면, 자신의 공격 턴에 사용할 수 있다. 1D6을 굴려 5 이상일 경우 1D6만큼 생명력을 회복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D4만큼 생명력을 잃는다.

시나리오 마스터가 필요한 경우 모브를 등장시켜도 됩니다.